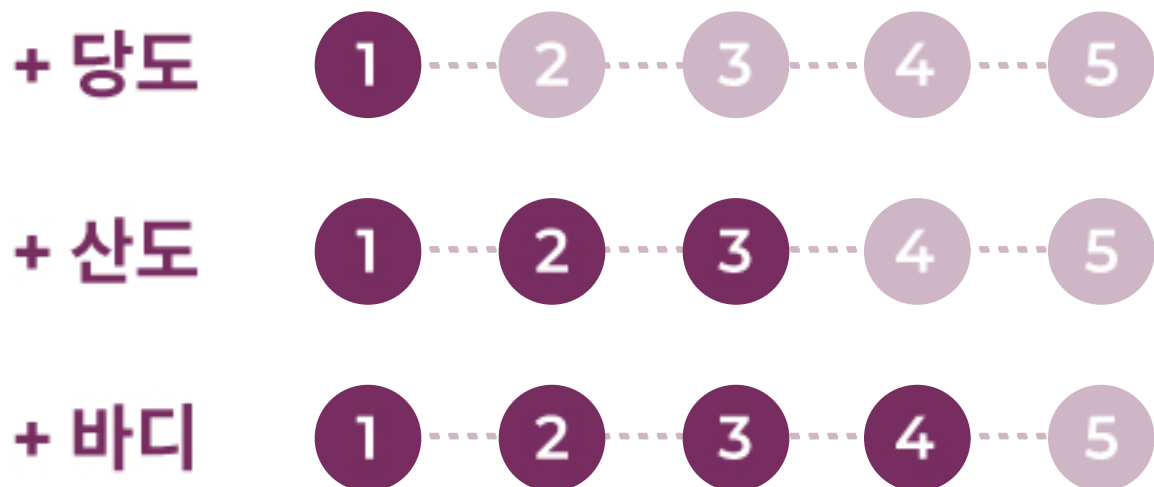




Louis Jadot Clos Vougeot Grand Cru

루이자도 끌로 드 부쵸 그랑크뤼

200년 가까운 역사에 부르고뉴 전역에서 와인을 빚어온 노하우를 지닌 부르고뉴 와인의 대표주자



Point

- 루이자도는 끌로 드 부쵸 빈야드의 2번째 소유주이다
- 2022 RP (92-94)
- 와인서빙 추천온도 16~17도, 20년 이상 숙성가능

Type	레드 와인
Country / Winery	프랑스 > 부르고뉴 / 루이자도
Grape Variety	피노 누아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굽거나 소스를 곁들인 각종 붉은 육류요리, 풍미가 진한 야생 육류요리, 까망베르, 시토 등 너무 진하지 않은 숙성 치즈

Information

루이 자도의 끌로 부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‘파워풀함’과 ‘깊이감’이다. 검붉은 과일의 집중도 높고 우아한 향과 플로럴한 부케, 숙성되면서 나타나는 동물성 향이 복합적인 레이어를 만든다. 풀 바디하고 골격이 단단하며 입 안에 여운이 길게 남는다. 18개월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으며 15~20년 더 두고 보관이 가능하다.

Awards

- 2016 : Wine Spectator 97점
- 2015 : Wine Advocate 91-93점, Wine Spectator 95점
- 2014 : Wine Spectator 92점
- 2012 : Wine Advocate 90-92점, Wine Spectator 92점
- 2011 : Wine Advocate 92점, Wine Spectator 90점

Tip

| ‘끌로 부쵸’는 꼬뜨 드 뉘 한 가운데 위치한 부쵸 마을 내의 그랑 크뤼 밭이다. 부르고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그랑 크뤼이자 지역의 아이콘이기도 하다. 부쵸 마을의 재배면적 80% 가량을 끌로 부쵸 그랑 크뤼가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70~80개의 생산자들이 구획 별로 잘게 쪼개어 소유하고 있는데 루이 자도는 2헥타르를 소유해 2~4위 정도에 랭크된다.